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그날을 생각하며

나는 기도원에 머물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찰스 3세의 대관식을 TV로 보았다. 어마어마한 대관식이였다. 무려 10억 명이 넘는 지구촌 사람들이 이 대관식을 TV로 지켜보았고, 200여 개국 주요 인사들이 이 대관식에 참석했다. 경비도 천억 넘게 소요되었다니 그 화려함은 실로 표현 불가다. 대관식을 끝낸 왕과 왕비는 황금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으로 갔다.

나는 기도원 직원들을 만나 말했다. “저 정도의 대관식이라면 나는 목사 안 한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는 저 정도가 아니다. 천천만만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며 맞이할 것이다. 또 찰스 3세의 왕관은 장차 우리가 받을 면류관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정말 주님이 직접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찰스 3세는 황금마차를 타고 아스팔트 길로 갔지만, 우리는 황금마차를 타고 황금길을 따라 우리가 거할 처소로 갈 것이다. 그 곳은 버킹엄궁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가지가지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금 장식되어 가고 있다. 기대되고 흥분되지 않는가.”

신앙이 미지근한 것은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 그 천국은 우리의 상상력을 총동원해도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곳이다.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곳이다. 왜 안 그러겠는가. 천국(天國), 말 그대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곳이 어땠하겠는가. 천지 만물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곳은 얼마나 멋지게 꾸미셨을까.

나는 찰스 3세와 왕실 가족들이 버킹엄궁 발코니로 나와 국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답례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 앉아 떡을 떼며, 한자리에 앉아 심판하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물론 나를 도와 일한 사람들도 그곳에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천국의 로열패밀리니까.

찰스 3세는 70여 년을 기다려서 왕이 되었다.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인내하며 가야 한다. 그날에 받을 영광, 그날에 받을 면류관, 그날에 내가 거할 처소를 그리며 오늘의 좁고 험작한 길을 열심히, 충성되게 가자. 그날은 곧 온다. 할렐루야!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방언기도 하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에 따르는 은사, 곧 영적 무기를 제공해주셨다. 가장 처음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임한 성령의 은사는 방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방언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는 천국의 언어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를 하기에 그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 악한 마귀도, 귀신도 알아들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에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 비밀대화

8, 90%는 방언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나는 매일 최소 4시간,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회가 있을 때는 하루 7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방언기도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요, 이 방언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장래 일을 알게 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었기에 오늘의 예수 중심교단이 전 세계로 복음의 가치를 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만의 전매특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

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답답해하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의 카드로 방언기도 하라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가장 처음 내려준 성령의 은사도 방언이었습니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를 통하여 흑세무민하는 자들이 나와서 방언은 그 시대, 그 역사에 끝난 것이고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을 찢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인생에 장애물이 없다
(춘계산상집회에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가 가능한 것이다(고전14:2). 목사님은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방언기도에 대해 강조하시며 ‘연장과 무기를 주었는데 쓰지 못하니 답답하다’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아들들이나 손자들이 내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내 속에 들어와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후 첫 일성으로 성령을 받으셨다(요 20:22)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의 은사로 주신 방언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깊은 속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오늘에 있는 것은 방언기도 덕분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기도를 많이 함으로 감사하다(고전14:18) 한 그 말에 나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 기도의

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일 못하는 놈이 연장 탕한다고 했지만, 요즘엔 일 잘하는 사람이 연장 탕을 합니다. 왜냐? 연장이 좋으면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가 좋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및 서방세계를 향하여 첨단무기 지원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아무리 좋은 연장, 좋은 무기를 줬는데도 이를 사용하는 법도 모르고,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는다면 그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적 무기, 연장을 주셨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두려워 떨고만 있으니, 우리 하

록된 말씀일진대, 이 진리의 말씀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답답한 것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경험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들에 현혹되어 내가 경험한 것을 그리도 쉽게 팔아먹는단 말입니까? 신학자래, 박사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혹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단언컨대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넉넉히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은택 목사

이초석 목사 대구 엑스코 집회

6월 6일 오후 3시 (엑스코 동관 4홀) 문의 02. 533. 9191, 053. 552. 0688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엡6:1~3)

네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목사님, 어떡하면 복 받고 살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제 답은 이것입니다.
“복 받고 살기 원한다면 네 부모를 공경해라.”
모든 질문에는 답이 있기 마련인 법,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6:1~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출20:3)는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첫 계명이라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12)는 약속이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이라 하심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효도(孝道)는 백행(百行)의 기본이다

그렇다면 정말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을까요? 당연히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요,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아비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잡고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늙은 아버지를 밀어버리고 충분히 도망갈 힘과 기회가 있었습시다만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제물이 되기로 자원했습니다. 그가 믿음의 선전 중에 가장 편한 인생을 산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요셉도 효자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까지 심부름을 했습니다. 요셉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터라 안 가겠다고 응석을 부릴 수도 있었지만 순종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노예로 팔려 힘든 세월을 살았습시다만, 훗날 그는 형제들을 용서한 것뿐 아니라 잘 공케하고 조카들까지 챙김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받은 복은 헤아릴 수 없지요.
룻은 어땠나요? 그는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으나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와서 시어머니를 잘 섬겼습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아사라는 재벌 남편을 주었고, 다윗의 선조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새는 말쑥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적군과 싸우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고 안부를 살피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동네 슈퍼마켓으로 심부름

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군소리 없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더니 골리앗을 죽여 영웅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자신의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리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넘기셨습니다(빌2:6~10).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잘 모셨더니 사도 요한은 제자 중 가장 오래 살아 요한계시록까지



총회장 이초석 목사

쓰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문제에 답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못 푸는 세대가 있으니 바로 지금의 세대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횡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딤후3:1~2). 어느 가족이 이사 가는 날, 늙은 아버지가 개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아들이 “아버지, 왜 개를 안고 계세요? 개 더워요.” 하며 성질을 냈습시다. 그러자 아버지가 민망한 얼굴로 말합니다. “너네들이 개는 챙기지만, 나는 안 챙기니까 나 안 데리고 갈까 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워주셨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받은 모욕을 아시죠? 물론 이는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자 일부러 던진 말씀이지만, 왜 그녀가 그런 모욕을 참아냈을까요? 자식 고치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우리를 먹이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심한 모욕도 마

다하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내 자식들만 잘 된다면...’ 하며 견디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요?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요게벳이 생각납니다. 모세의 어머니 말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했을까요? 행여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 행여 들릴까 안절부절못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행여 자식이 아플까, 행여 기죽을까, 행여 자식이 잘못될까 걱정하며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개보다 못

합니까? 하긴 부모를 내다 버리는 놈도 있고, 패는 놈도 있으니...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의약

속이 있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신27:16).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결국이 어땠을까요? 그는 요압에게 살해된 후 수풀 큰 구멍에 던져졌습니다(삼하18:17).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여러분, 효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모는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겨자씨만 한 믿음을 요구하셨듯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부 전화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어쩌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십니다. 곁에 있어드리면 세상을 다 얻은 듯하시고요, 아주 적은 용돈이라도 드리면 자식이 준 거라 아까워서 그걸 못 쓰고 장롱 밑에 모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혹자는 “부모가 뭐 해준 게 있어야지요.”, “부모가 부모다워야 대접을 하지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 성경은 분명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엡6:2)고 하셨습니다. 잘해준 부모,

재산 남겨주는 부모, 건강한 부모, 많이 배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효는 자식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효자동(孝子洞)의 유래에 대해 아시지요? 어느 할아버지가 낫술을 드시고 취해서 그만 당신 방이 아닌 며느리 방에 들어갔습시다. 얼른하게 취하셨으니 잠이 쏟아졌고, 그만 갓 난 손주가 베개인 줄 알고는 머리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집안일을 하던 며느리가 자기 방에 들어와보니 이런...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는 세상모르고 주무십니다.
바깥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아들은 부엌에서 슬피 우는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아들은 자식 잃은 것보다 이 사실을 아시면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하는 생각에 어서 뒷동산에 묻기로 하고 가서는 아들의 영당을 호되게 때리며, “이 자식아, 너는 왜 죽어서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이 불효를 어찌라고?”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살아났습니다. 이 일이 동네에 퍼지고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 그 동네 이름이 ‘효자동’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효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본을 보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효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효자 집안에 효자 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이 최초의 교육기관이요, 최고의 교육기관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만한 것이니라”(딤후5:4).

효도는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효도할 시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입니다. 돌아가시고 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 부모님의 빈자리가 큼니다. 그때 후회해야 아무 소용없습시다. 지금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과 대화하고, 부모님의 불편함을 해소해드리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복 받고 살 수 있나요?”
부모님께 효도하면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신5:16). 할렐루야!

:: 객원컬럼 ::

평판(評判)도 실력이다!

일전에 주재원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에게 기도 요청을 받았다. 여러 사정이 겹쳐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한참 이야기를 들어주고는 이런 권면을 했다. “사회생활 잘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일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주어진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은 사실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일 잘하는 사람은 평판 관리, 이미지 관리, 인맥 관리에도 철저하다.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는 것만큼 평판 관리도 실력이다. 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마10:16)고 하셨을까? 웅통성을 가지되, 거짓되지 말고 죄악과 타협하지 말라는 의미다. 철로를 놓을 때 이음새에 약간의 간격을 둔다. 길과 길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을 때도 마찬가지다. 더운 여름, 더위에 열광창이 발생하면 휘거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유를 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와 같다. 적당한 웅통성, 이해심과 배려가 사람 사이를 더욱 부드럽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과 삶에 여유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소통과 화합을 이룬다. 총회장 목사님은 평소에 ‘약속을 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함이라 하신다. 역설적으로 보이겠지만 약속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평소엔 동네 어르신처럼 허허롭기 그지없다. 하지만 단에 서실 때면 180도 달라지

신다. 유심히 살펴보면 단에 서실 때마다 거울을 보시며 옷매무새부터 다시 점검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 자신의 이미지는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신앙과 인격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진가가 드러난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나이 사십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 말했다. 잘 생기고 못 생김에 대한 말이 아니다. 내면의 모습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다. 실제로 피부 아래에는 엄청나게 많은 근육이 자리하고 있다. 근육들 대부분은 표정과 관련된 근육이라서 표정근이라고 한다. 이 표정근으로 인해 그 사람의 성격이 얼굴을 통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옛사람들도 우리 ‘얼굴’을 ‘얼(흔)의 통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한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리는 움직이는 광고판이다. 그런 우리의 언행심사가 어떠해야겠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롬 14:18). 나는 지금 하나님과 주위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가 생각해보자. ‘거울은 스스로 웃지 않는다.’ 목사님의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볼 일이다.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 세상을 보는 창 ::

사랑함과 좋아함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좋아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 차이점은 좋아하는 것은 감정의 차원이고 사랑하는 것은 삶의 차원이다. 좋아하는 감정은 고통이 오면 떠나지만, 사랑은 고통이 오면 껴안는다.” 어느 책을 읽다가 적어 놓은 것인데, 다시 읽어보니 마음에 와닿았다. 특히 ‘사랑은 고통이 오면 껴안는다.’라는 말에 가슴이 찡하며 뭉클했다. 고난은 사랑의 시금석이다. 평소에는 잘 모른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탄할 때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차이를 못 느낀다. 그러나 막상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사랑했던 것이 그냥 감정이었는지 아니면 진실한 것이었는지 밝혀지게 되니 말이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보았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가, 사랑하는가? 나는 교회를 좋아하는가, 사랑하는가? 나는 맡은 바 일을 좋아하는가, 사랑하는가?” 스스로 점검해보았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나의 사명을 사랑하며

충성을 다 할 수 있는가?” 자문자답하며 사랑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될 수 있지만, 또한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랑 없이 좋아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감정에서 끝나지만, 사랑하고 좋아하면 상대방 중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신다’고 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좋아하고 기뻐하게 된다. 다시 한번 마음을 살피며 다짐해본다. “사랑하며 좋아하리라. 사랑 없이는 좋아하지 않으리라. 사랑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러하시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해본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느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벧전1:8).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사랑과 정이 그림다

모닥불과 같은 따뜻한 정과 사랑이 그리운 세상이 되었다
모든 자가 돈에 미쳐 뛰는 모습을 보니
인간 본연(本然),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시간은 편견이 없는데
인간은 편견으로 가득 차 선한 눈빛을 잃은 지 오래요
세상에 눈이 멀고 귀가 막힌 채 질주하니
여유 없는 싸움터 같은 마음이며!
마지막 보루(堡壘), 가정마저
사막 모래바람 속에서 오아시스를 외치고 외치니
아~ 그리운 사랑과 정이며, 돌아오라
다시 만나 조곤조곤 이야기 나눠보세나
가정의 달을 지내며
朋友

:: 생명의 말씀 ::

사랑과 공의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 사랑과 공의를 균형적으로 시행해야 할 때가 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무분별한 온정주의로 기울며, 또한 사랑 없는 공의는 냉혹한 율법주의로만 가기에 교육을 망치게 된다. 20년 전 소천하신 아버님이 생각한다. 딸 여섯에 막내로 아들 하나를 가지셨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나를 키우셨을까? 그런데 아들 하나를 강하게 키우셔야 한다는 일념으로 매우 엄하게 나를 대하셨던 관계로 사춘기 시절에는 사실 서운함도 많았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내가 어려서 아프거나 감기로 고생하고 있을 때 늘 나를 등에 업고 기도하고 찬송을 흥얼흥얼 부르시며 다독겨주셨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도 내 기억의 편린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양육 받는 자녀 입장에서선 자기에게 좋은 것만을 선하다고 생각하며 받으려 한다. 그러다 보니 공의의 채찍만이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진실한 사랑을 왜곡하게 된다. 사실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이, 공의를 시행하시는 그분과 똑같은 분이었는데도 말이다.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 나의 부모님을 한층 더 이해하게 되었다. 나를 너무 사

랑하시는 그분이 때로는 맹렬히 진노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게 온전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지만, 공의 또한 그분의 성품이시다. 나에게 옳다고 느껴지는 것만이 선이 아니라 그것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 선이다. 그분이 옳으신 일을 시행하셔야 선이다. 그래서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지만, 택한 자를 연단하시는 분이시다. 진노의 율법을 주신 분이 사랑의 계명으로 오셨다. 온 세상을 지으신 무관심한 초월자가 아주 작은 나를 아시고 내 안에 오셔서 섬세히 가르치신다. 그분이 바로 그분 이시다. 한쪽만을 붙잡으려 하니 하나님을 왜곡하게 된다.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일리 있는 설명일 수는 있으나 온전한 설명은 아니다. 일리는 진리의 한 부분일 뿐, 그것을 전부라 우기는 건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진리 되려면 전체를 봐야 한다. 진리에는 사랑의 제한이 있기에, 그 안에 거할 때 자유가 임하는 거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34:8).

송직화 목사

:: 동행하는 삶 ::

:: 빛이 되리라 ::

예수로 사는 인생

얼마 전 감기몸살을 심하게 앓았다. 많이 아프고 난 후 위염도 와서 또 며칠간 고생을 했다.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뭔가 마음이 서럽고 내 모습이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불과 한 달 전쯤에도 머리에 찢릿한 통증이 있어서 신경외과를 다녀왔었는데, 요즘 몸이 왜 이런가 싶어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안 되겠다 싶어 집에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몸이 힘들니 기도도 쉽지 않아 평소 즐겨듣는 찬양 영상을 TV로 틀었다. 나지막이 찬양을 따라 하며 가사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데 눈물이 흐르며 강한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러자 어두움이 떠나고 빛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고, 몸에도 점점 새 힘이 솟아나 나의 찬양 소리도 점점 커져갔다. 그렇게 집에서 은혜가 넘치는 나만의 찬양 집회가 펼쳐졌다.

“악한 것들아, 아무리 공격해봐라. 내가 눈하나 깜짝 하나. 나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거다. 어디 한번 해봐라.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하고 나니 온몸에 더욱 힘이 생기고 뜨거운 무언가가 샘솟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감사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왔다.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니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 마침 그때 틀어놓은 영상에서도 이런 찬양이 흘러나왔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 /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불드네/ 주님 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을 책임져주신다는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 또 한참을 울었다. 맞다. 예수로 살면 된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늘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버틸 힘주시고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

시는데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어려울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미뤄뒀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면역력에 좋다는 영양제도 챙겨 먹었다. 청·장년부 새벽기도에도 더욱 열심히 참석하며 기도했고, 청·장년부 전체 기도 제목과 내 기도 제목, 팀원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 진심으로 같이 중보기도 했다.

악한 마귀는 지속적으로 기회를 노린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러트리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무너트리려고 기회를 엿본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육신이 약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찬양 주심에 감사했다. 찬양으로도 기도하니 이후에는 기도에도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

예수로 살면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주신다. 앞으로도 더욱 예수만 위해 사는, 예수로 사는 내가 되리라 고백해본다.

정효경 집사
happy_holly@naver.com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

작년 가을 기도원집회에 갈 때 가슴 아팠던 장면을 하나 보았다. 남부 지방 가뭄으로 장성호에 물이 말라버린 것이었다. 물이 아예 하나도 없이 메마른 바닥만 드러내고 있어서, ‘여기가 장성호 맞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 아름답던 장성호가 메마르니, 웬지 모르게 마음이 아파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왔다. ‘하나님, 다음 기도원집회 갈 때는 물이 차 있는 장성호를 보게 해주세요.’라고 말이다.

시간이 지나 이번 5월 춘계산상집회가 열렸고, 집회를 마치고 올라오면서 장성호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전보다는 물이 차오른 장성호를 볼 수 있어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다행히 집회 기간에는 비가 오지 않았으나 집회가 끝나자마자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뉴스도 보게 되었다. 이 작은 기도 소리도 듣고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어디 이쁜인가? 기도원집회를 통해서 영적 단비를 내려주셔서 메마른 우리 마음이 성령의 비로 촉촉이 젖게 하셨다.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의 말씀도 많이 들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셨다. 예매만 좋았던 것이 아니다. 무료로 제공해주는 밥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고, 토스트도 좋았다. 새롭게 단장한 화장실도 아름다웠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준비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제공해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도원집회를 또 기대하고 기다린다. 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선물을 가지고 우리를 만가이 맞이해주실 것이라 확신한다.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노량진 교육관

문의: 02-533-9191

:: 짧은 이야기 ::

지금 몇 시?

어떤 사람이 인생을 70년으로 보고 그것을 하루 24시간 안에 축소해 보았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나이가 30세면

오후 1시 25분에 해당되고, 35세면 오후 2시 25분이며, 40세면 오후 4시 16분이요, 45세면 오후 5시 43분이 된다. 또 나이가 50이면 오후 7시가 되고, 55세면 저녁 8시, 60세면 밤 10시가 된다. 그러다 70세가 되면 밤 12시 종이 울린다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몇 시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점심 시간대를 지나고 있는가, 퇴근시간

대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이불을 깔 때가 되었는가? 인생은 결코 길지 않다. 어쩌면 인생이란 이처럼 하루살이에 불과할지 모른다. 곧 날이 저물고 캄캄한 밤 시간대에 이르게 될 것이고, 자정을 알리는 패종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힘이 있을 때 주를 위해 힘써라. 후회보다 아픈 것이 없으니.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창세기 3장에 나온 엉겅퀴의 효능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이 형벌로써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창세기 3장에 나온 엉겅퀴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엉겅퀴는 한약재명으로 대계(大薊)라고 하며 지혈효과가 뛰어나서 산후출혈, 자궁출혈, 코피, 장염, 신장염, 혈변, 종기 등에 사용이 됩니다. 각종 염증을 치료해 주며 고혈압에도 사용됩니다.

건강식품 중에서 밀크시슬(milk thistle)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엉겅퀴(대계)입니다. 간에 좋은 영양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기능이 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간세포를 보호하여 만성피로 회복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밀크시슬인 대계(大薊)의 성질이 조금은 선천하여 몸이 많이 차가운 체질은 일시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고, 몸에 체열이 있거나 소화력이 좋은 분들은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탈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영양제인 밀크시슬(엉겅퀴)을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에게 징벌의 하나로써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밀크시슬(엉겅퀴)의 효능을 모

르셨을까요? 아마도 인류에게 내리신 출산의 고통 속에서 출혈과 회복을 도울 수 있고, 평생 노동 가운데 지친 몸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숨은 대비책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지치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엉겅퀴를 통해 생각해봅니다.

“불찌여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찌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욥5:17~18).

Dr. 설재현 집사

